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¹⁾ 최윤경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의 공동양육이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1세 영아의 가정의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만 1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300가구에 방문하여, 모-영아의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을 직접 관찰하였고, 부의 공동양육, 모의 양육효능감 등은 면담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부의 공동양육이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부의 공동양육 정도는 모의 양육행동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모의 양육행동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부의 공동양육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과 기업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부의 공동양육,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 모의 양육행동, 모의 양육효능감

I. 서론

최근 초저출산 추세를 이어가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영아자녀를 직접 돌보고자 하는 부모가 늘고, 육아휴직제도의 기간 및 비용 등이 향상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늘어남과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널리 인지하면서, 남성들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김지현·문무경·최윤경, 2017)」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2018. 11. 3.)에서 포스터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하였음.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0년에 1.96%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6년 8.58%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0년 현재에는 24.7%를 기록하였다.¹⁾ 이처럼 많은 아버지들이 직접적으로 양육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러한 아버지가 함께 하는 양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 함께 질 높은 육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기는 전 생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시기이다. Scammon(1930)에 따르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뇌 발달의 약 60%가 만 2세 전에 진행된다. 따라서 만 2세 전 영아가 접하는 시각, 청각 등 감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영아에게 제공되는 질 높은 양육환경은 영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원식(2005)은 가정환경의 구분으로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및 가족 상황을 포함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상태 및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지위 상태를 포함하여 지위 환경이라고 하였고,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문화, 가치, 학습 체제 등을 구조환경이라 구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가정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과 양육자가 제공하는 양육행동은 영아에게 매우 중요한 양육환경을 구성한다(김지현·문무경·최윤경, 2017). 특히 만 1세(12-23개월)는 걸음마 시기를 거치면서 활발한 탐색적 이동을 시작하고, 양육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영아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영아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적극적인 반응과 자극을 제공하는 양육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아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주 양육자 또는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행동은 영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아가 표현하는 신호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고(권정윤·정미라·박수경 외, 2012),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 때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진다. 또한, 양육자의 질 높은 양육행동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김경미·안선희, 2010)에도 영향을 주며, 영아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자의 양육행동은 양육자의 부부관계(강선자·손수민, 2011)와 부의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지원(서석원·이대균, 2014)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 심리(서석원·이대균, 2014) 및 양육효능감(이경선, 2011; 이인화·박지은·최성열, 2010; 최윤희·문혁준, 2016)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1) 고용노동부(2020).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긍정적인 양육행동 중에서도 중요한 모-영아 상호작용은 다른 양육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주연(2009)은 24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최윤희와 문혁준(2016)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가정에서의 물리적 양육환경은 가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음, 안정 등 아동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안지현, 2014). 이미화, 김은영, 권미경 외(2016)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양육환경 중 중요한 요소로 영아 가정의 안정성, 청결 및 놀잇감 구비 등 물리적 환경의 질을 논하였다. 특히, 주변 탐색이 활발해지는 만 1세 시기에는 안전하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과 다양한 놀잇감 제공 등이 중요하다(김희진·김은영·김현주 외, 2011). 또한,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정미라·권정윤·박수경, 2011). 구체적으로, 노보람과 최나야(2018)는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특히, 저소득 가정일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가정환경 자극 물리 영역이 유아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일수록, 가정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 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누리·문혁준, 2014). 송효현(2014)은 가정환경 자극과 아버지 역할수행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이혼 후 부자 가정과 양부모 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이혼 후 부자가정의 아버지 경우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를 위한 위기 대처, 자녀부양의 역할 등의 아버지 역할수행 점수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의 아버지 역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에도, 가정의 물리적 환경, 도구의 다양성, 언어성 자극 등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가정환경 자극은 양부모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송효현, 2014). 이는 부-자 가정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의 역할수행이 높은 부분이 있음에도, 가정환경 자극이 영역에서는 양부모가정이 높게 나타나, 부와 모가 함께 하는 공동양육과 가정의 물리적환경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적 양육지원에 속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등 주로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정미라·이방실·박수경, 2013),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시킨다(박성연·임희수, 2000).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참여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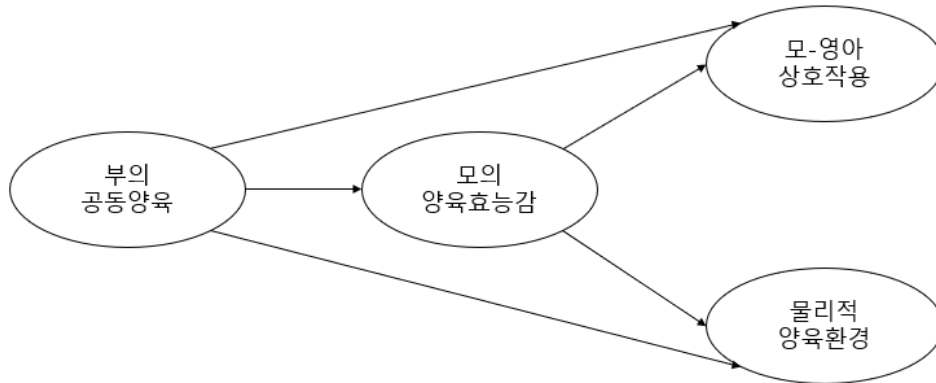
머니의 양육 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최윤희와 문혁준(2016)은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승은(201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 수용적 양육 태도는 아버지의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등의 양육참여 정도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 영향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양육을 함께(영아용품 구입, 습관 및 생활지도, 놀아주기 등의 측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평가함)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고(한유미·조경자·강기숙,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과 영아의 소근육 발달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강한나·박혜원, 2013). 또한, 아버지의 양육 정도가 높았던 경우 영아의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전홍주·조수경·김미정 외, 2014).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으나,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해 오고 있어, 아버지가 양육의 주체라기보다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해 양육참여라는 표현을 써왔고, 이에 본 연구도 부의 양육참여 개념을 이용해 연구한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고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부의 공동양육의 영향을 보고자 하여 본 연구의 변수로는 ‘공동양육’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공동양육은 모의 양육효능감을 비롯한 모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모의 양육효능감은 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의 공동양육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모-영아 상호작용으로 대변되는 모의 양육행동과 영아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의 공동양육은 모-영아 상호작용과 영아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모의 양육효능감은 부의 공동양육과 모-영아 상호작용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연구문제 3. 모의 양육효능감은 부의 공동양육과 물리적 양육환경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찾아 통제하였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부의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부의 양육친화적 직장문화가 부의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조희금, 2016; 최지은·김현경, 2019). 두 번째로, 모가 전일제 취업상태일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유의미하게 높은 기존 연구 및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모의 전일제 취업이 부의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강란혜, 2001). 마지막으로, 영아의 입장에서 형제 유무가 모의 양육효능감 및 모-영아 상호작용, 물리적 양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경우와 자녀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모와 영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자녀의 양육을 연구한 연구(최옥채, 2019)에서는 다자녀 양육의 특징으로, ‘되도는 돌봄 가중’, ‘자녀들의 자체 양육’ 등의 특징을 꼽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돌봄에 필요한 양육자의 노력이 더 많다는 것과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부모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최옥채, 2019). 또한, 김용미(2016)는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다자녀 출산으로 가사노동과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부모가 각각의 자녀에게 나누어 양육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제 유무가 부의 공동양육을 비롯한 주요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둔 가정에서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300가구를 방문하여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찰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아 부모의 일반적인 특징은 모의 연령이 만 30-35세 미만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 취업상태는 전일제 취업 13.3%, 시간제 9.4%, 육아휴직 15.2% 그리고 미취업이 62.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녀 특징은 12-18개월 미만 영아, 18-24개월 미만 영아를 150명씩 할당하여 모집하였고, 성별 비율은 남아가 155명(52.7%), 여아가 145명(48.3%)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형제유무의 경우 형제가 있는 경우가 179명(59.7%), 형제가 없이 첫째 자녀인 경우가 121명(40.3%)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자녀 및 부모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자녀 특성〉			
월령		형제유무	
12-18개월 미만	50.0(150)	형제 있음	59.7(179)
18-24개월 미만	50.0(150)	형제 없음	40.3(121)
성별		어린이집 이용여부	
남	51.7(155)	이용함	41.0(123)
여	48.3(145)	이용하지 않음	59.0(177)
〈부모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	
200만원 미만	6.7(20)	만 25세 미만	0.7(2)
200-300만원 미만	10.3(31)	만 25-30세 미만	8.0(24)
300-400만원 미만	28.3(85)	만 30-35세 미만	52.3(157)
400-500만원 미만	20.7(62)	만 35-40세 미만	37.3(112)
500-600만원 미만	14.0(42)	만 40-45세 미만	1.7(5)
600-700만원 미만	9.3(28)		
700만원 이상	10.7(32)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취업상태		학력	
전일제	13.3(40)	고졸 이하	6.0(18)
시간제	9.4(28)	전문대졸	15.0(45)
휴직	15.3(46)	4년제 대졸	64.0(192)
미취업	62.0(186)	대학원 이상	15.0(45)
전체	100.0(300)	전체	100.0(3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의 공동양육, 모의 양육효능감, 인적 양육환경으로 모-영아 상호작용, 물리적 양육환경이며, 기타 통제 및 배경 분석을 위해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모의 전일제 취업 여부, 형제 유무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가. 부의 공동양육

부의 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지현, 문무경, 최윤경의 연구(2017)에서 개발한 부의 공동양육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영아자녀와의 기본생활돌봄(먹이기, 입히기, 기저귀갈기, 목욕시키기)을 배우자와 함께 한다’, ‘영아자녀와의 놀이(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등 외출하기)를 한다’, ‘영아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 활동(식사준비, 빨래, 청소)을 함께 한다’, ‘훈육 및 양육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한다’, ‘배우자와의 공동양육전반에 만족한다’의 5 문항이 활용되었다. 본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의 공동양육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0$ 로 나타났다.

나. 모의 양육효능감

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화, 김은영, 권미경 외의 연구(2016)에서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역량 15문항 중 영아에게 가장 적합한 문항 5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 영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부모로서 겪게 되는 좌절에 잘 대처해 나간다’, ‘나는 나의 행동이 영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를 포함한다. 본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다. 인적 양육환경: 모-영아 상호작용

가정에서의 인적 양육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인적 양육환경을 평정하였다. 그 중에서 관찰을 통해 평정한 4문항의 모-영아의 상호작용을 인적 양육환경으로 정의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영아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관찰내용은 '1)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2) 영아에 대한 민감성/반응성', '3)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4) 영아와의 신체적 상호작용' 등 총 4개의 세부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평정 기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정도에 따라 양호(2점), 보통(1점), 미흡(0점)으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모-영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질 높은 인적 양육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1$ 로 나타났다.

라. 물리적 양육환경: 가정의 전반적 정리 및 안전

가정에서의 물리적 양육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을 통해 가정의 양육환경을 관찰하고 평정하였다. 물리적 양육환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5개의 문항으로 '1) 영아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2) 실내의 전반적인 정리 환경', '3) 1세아 놀이 공간 확보', '4) 거실, 욕실, 놀이 공간 등에서의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 여부', '5) 직경 3센티 이하의 삼킬 수 있는 물건, 칼, 세제 등 위험요소 제거 정도' 등 5개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놀이 공간 확보 및 정리, 안전환경 등 1세 영아에게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가정 양육환경을 포함한다. 척도는 평정 기준에 따라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양호(2점), 보통(1점), 미흡(0점)으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환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6$ 으로 나타났다.

마.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는 다음의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세부 문항으로는 '1) 나 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2) 나 또는 배우자의 직장동료(직장상사 포함)는 나(또는 배우자의) 양육을 지지해준다', '3) 나 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근무시간 외 업무, 원치 않는 회식 등이 많아 귀가시간이 자유롭지 않다(역문항)'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부의 직장이 가족 친화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 모의 전일제 취업 여부

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고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휴직, 미취업 등으로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자는 영아 만 1-2세 사이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미취업인 경우가 62.0%, 전일제 취업의 경우 13.3%, 시간제 취업의 경우 9.4%, 휴직의 경우 15.3%의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일제 취업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고, 모가 전일제 취업인 경우 전일제 취업으로 코딩(1)하고, 그 외의 경우 그 외(0)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사. 형제 유무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양육자가 영아 한 명을 돌보는 경우와 영아 외에 돌보아야 할 다른 형제의 존재가 있는 경우는 양육자가 영아에게 기울일 수 있는 양육 행동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세 영아 외의 형제 유무를 파악하여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설문에서 대상 영아 이외의 형제의 수를 파악하였고, ‘1명 이상의 형제가 있을 경우(1)’, ‘형제가 없이 혼자인 경우(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가정방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은 2차례에 걸쳐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물리적 양육 환경, 모-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후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1세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관찰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영아의 낮잠시간을 피하고 컨디션이 좋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선정하였다. 가정방문 시간은 모-영아 상호작용 10분,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 관찰을 포함한 면담식 설문 한 시간 정도를 포함하여, 한 시간에 한 시간 반가량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에 결측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측치 처리는 하지 않았고, 부의 공동양육과 모-영아 상호작용, 부의 공동양육과 물리적 양육환경 사이의 관계와 이 관계에 미치는 모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편향 수정 부트스트랩(Biased-corrected 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였다. 간접효과 측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과분석에서 설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은 모의 양육효능감, 부의 공동양육, 물리적 양육환경, 모-영아 상호작용이지만, 통제변인으로 이용된 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모의 전일제 취업, 형제 유무도 함께 포함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오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 양육효능감은 부의 공동양육($r = .185,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물리적 양육환경($r = .141, p < .05$), 모-영아 상호작용($r = .116, p < .05$)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의 공동양육은 모-영아 상호작용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121, p < .05$), 통제변수인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r = .239, p < .01$)와 모의 전일제 취업 여부($r = .163, p < .01$)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형제 유무는 물리적 양육환경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33, p < .05$).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N = 300$)

	1	2	3	4	5	6	7
1. 모의 양육효능감	1						
2. 부의 공동양육	.185**	1					
3. 물리적 양육환경	.141*	-.013	1				
4. 모-영아 상호작용	.116*	.121*	.021	1			
5.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078	.239**	-.039	.019	1		
6. 모의 전일제 취업	-.044	.163**	.016	-.009	-.072	1	
7. 형제 유무	.101	-.069	-.133*	-.048	-.027	-.143*	1
평균	3.01/4	2.97/4	1.80/2	1.64/2	2.24/3	.13/1	0.40/1
표준 오차	.38	.58	.24	.33	.69	.34	.49

* $p < .05$, ** $p < .01$.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쓰인 모의 양육효능감, 부의 공동양육,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이 각 잠재변수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68.571(df = 146, p < .001)$, $RMSEA = .023$, $TLI = .976$, $CFI = .979$ 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MSEA < 0.08$, $TLI > 0.90$, $CFI > 0.90$ 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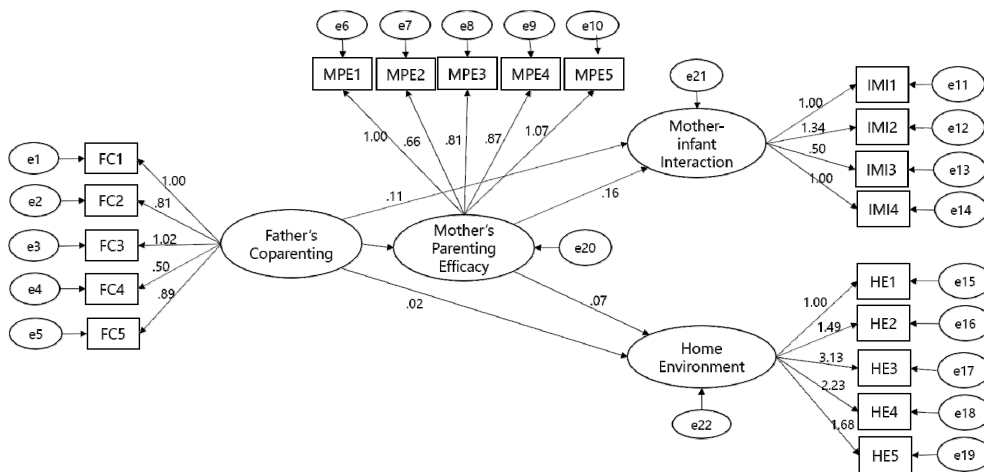
구분		<i>B</i>	β	<i>SE</i>	<i>C.R</i>	standardized α	평균분산 추출
모의 양육효능감	PE1	1.000	.623			.686	.127***
	PE2	.653***	.422	.118	5.558		
	PE3	.805***	.492	.129	6.251		
	PE4	.889***	.627	.123	7.245		
	PE5	1.021***	.600	.144	7.097		
부의 공동양육	FC1	1.000	.822			.838	.396***
	FC2	.808***	.760	.060	13.490		
	FC3	1.016***	.696	.083	12.217		
	FC4	.499***	.536	.055	9.082		
	FC5	.891***	.757	.066	13.425		
물리적 양육환경	HE1	1.000	.447	-	-	.657	.019**
	HE2	1.497***	.551	.545	5.824		
	HE3	3.173***	.734	.172	5.068		
	HE4	2.243***	.476	.437	5.134		
	HE5	1.692***	.431	.349	4.855		
모-영아 상호작용	IMI1	1.000	.541	-	-	.605	.014***
	IMI2	1.297***	.692	.240	5.405		
	IMI3	.542***	.403	.115	4.697		
	IMI4	.872***	.453	.272	5.509		

구분		<i>B</i>	β	<i>SE</i>	<i>C.R</i>	standardized α	평균분산추출
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FFE1	1.000	.815	-	-	.566	1.025***
	FFE2	.999***	.857	.126	7.929		
	FFE3	.390***	.386	.065	5.972		

주: CFA모형결정지수: $\chi^2(df = 146) = 168.571 (p > .05)$, $CFI = .979$, $TLI = .976$, $RMSEA = .023$.
 *** $p < .001$.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의 공동양육이 영아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함께 살펴본 것이다. 부의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전일제 취업 여부와 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통제하고, 부의 공동양육, 모의 양육효능감, 물리적 양육환경, 모-영아 상호작용에 대해 형제 유무를 통제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구조모형 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chi^2 = 279.424(df = 243, p > .05)$, $CFI = .973$, $TLI = .970$, $RMSEA = .022$ 로 나타나, 홍세희(2000)에 의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RMSEA < 0.08$, $CFI > 0.90$, $TLI > 0.90$,를 충족하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본 연구의 구조모형

4. 매개효과 분석

이 연구에서 간접효과는 AMOS 26.0에서 샘플 2,000, 95% 신뢰도로 한 편이 수정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편이 수정 부트스트랩은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를 측정하는 우수한 방법으로, 무수한 표본에서 구한 추정 통계치가 평균적으로 모집단 모수치와 같을 때를 말한다(Cheung & Lau, 2008).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효과크기를 <표 4>에 나타내었다. 먼저, 부의 공동양육 정도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B = .150, SE = .053, p < .01$). 또한 모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B = .161, SE = .086, p < .01$) 및 물리적 양육환경($B = .068, SE = .034, p < .05$)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 모두 정적인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의 공동양육 정도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이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의 공동양육은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한 모-영아 상호작용($B = .024, SE = .014, p < .001$) 및 물리적 양육환경($B = .010, SE = .006, p < .01$)에는 각각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주요 간접효과 경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공동양육 정도에 따라 모-영아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모-영아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물리적 양육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결과이다.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부의 공동양육과 모-영아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물리적 환경 사이를 모의 양육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부의 공동양육은 모의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모의 양육효능감도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부의 공동양육은 모-영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의 공동양육은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표 4〉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의 양육효능감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150**		.150**
모-영아 상호작용			
모의 양육효능감 → 모-영아 상호작용	.161**		.161**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 모-영아 상호작용	-.026	.024***	-.002
물리적 양육환경			
모의 양육효능감 → 물리적 양육환경	.068*		.068*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 물리적 양육환경	.024	.010**	.034*

주: 비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영아의 형제유무, 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전일제 취업모 여부가 주요 변수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의 공동양육에 대한 통제변수(영아의 형제 유무, 부의 가족친화적 가족문화, 모의 전일제 취업 여부)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영아의 형제 유무 자체는 부의 공동양육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가 있는 경우 모의 양육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모-영아 상호작용에는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모의 양육효능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영아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제 유무에 따라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와 전일제 모의 취업 여부는 부의 공동양육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는데, 즉, 부의 직장문화가 가족 친화적일 경우, 모가 전일제 취업일 경우에 부의 공동양육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모의 전일제 여부는 부의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모의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통제함으로써,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모형 분석에 있어서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5〉 통제변수 효과 분석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형제유무			
형제 유무 → 부의 공동양육	-.048		-.048
형제 유무 →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107*	-.007*	.100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형제 유무 →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 모-영아 상호작용	-.092*	.017	-.075*
형제 유무 →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 물리적 양육환경	-.020	.006	-.015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 부의 공동양육	.137***		.137***
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000	.020**	.020**
전일제 취업모 유무			
전일제 취업모 유무 → 부의 공동양육	.309**		.309**
전일제 취업모 유무 → 부의 공동양육 → 모의 양육효능감	.000	.046*	.046**

주: 비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만 1세 영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양육환경인 모-영아 상호작용과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에 부의 공동양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모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의 중요성과 이러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공동양육 역할을 확인하고 고무시키는 데에 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 관찰하여 측정한 모-영아 상호작용 및 가정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면담을 통해 파악한 모의 양육효능감 및 부의 공동양육의 변수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절성과 매개변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상호작용 및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모의 양육효능감의 증대는 모-영아상호작용 및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의 양육효능감은 모의 실질적 양육행동, 즉 모-영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과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 특히, 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이 모-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던 이주연(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

게 온정적이고 격려를 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 최윤희와 문혁준(2016)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역할 인식과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송은과 박성연(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서 유능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말하며, 자녀와 노면서 보내는 시간, 자녀에게 애정 어린 관심의 표현 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자신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 및 유능감이 높을수록 질 높은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찾아보지 못했던 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정의 양육환경 조성에 주는 영향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을 높이 평가할수록 영아 가정에서 영아에게 제공해야 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부의 공동양육은 모-영아 상호작용과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모의 양육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영아 상호작용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의 양육효능감과 모-영아 상호작용의 강한 연관성으로 매개효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부의 공동양육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아버지의 공동양육을 이루는 하위영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아버지 양육의 하위영역에 있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에서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데(한누리·문혁준, 2014), 아버지의 양육영역에 따라,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우혜진과 유연옥(2017)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의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 중 가사활동이 유아의 가정환경 영역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서도 아버지 공동양육의 영역에 따라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효현(2014)의 연구에서도 부-자한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이 가정환경 자극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함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자녀와의 놀이뿐 아니라, 가사 도움, 영아 발달에 필요한 학습 도구 마련 및 다양한 구비, 안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등의 영역에 힘쓴다면, 영아에게 필요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 양육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의 양육효능감은 부의 공동양육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의 공동양육의 중요성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책임 및 아버지가 양육전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제 유무, 부의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모의 전일제 취업 등의 변수를 통제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통제변수들의 역할을 통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형제가 있는 경우 모의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형제의 유무가 모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모-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영아자녀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형제가 있다고 하여 부의 공동양육 정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경우 양육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일차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부의 공동양육을 통해 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많은 기업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제도들의 효과를 반증하는 결과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부의 공동양육을 통한 모의 양육효능감이 향상된다면, 모가 전일제 취업의 경우에도 영아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점도 고무적인 결과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물리적 양육환경을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아버지의 공동양육 영역에 따라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한, 모-영아 상호작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형제 유무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양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2017년 기준 만 1세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75.4%(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로 높은 편이지만, 영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양육환경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의 가정양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요성과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양육자의 심리적 건강과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을 아버지 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남성의 공동양육을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도 현저히 높아

지는 등 아버지 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실천은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고,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어머니가 취업상태일 경우 필요에 의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 중이었던 어머니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남편의 공동양육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로도 알 수 있다(김지현·문무경·최윤경, 2017). 하지만, 공동양육이 양육을 함께 책임지고, 이루어가는 책임을 감안할 때, 미취업 전업모나 어머니가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공동양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임현주(2013)에 따르면, 만 1세 영아를 둔 어머니 18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 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은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전업주부가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이로 인한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공동양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임신 시에 가게 되는 보건소나 출생 신고 시 방문하는 주민센터 등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에 영아기의 아버지가 함께하는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렛을 비치하여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 출산 시 방문하는 병원에서도 영아의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대상으로 함께한 자녀양육에 대한 간단한 안내 및 강의를 제공하여, 영아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 및 공동양육의 여러 가지 형태를 소개하고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교육이 행해질 수 있다.

둘째, 부의 공동양육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지지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의 공동양육 정도가 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가 충분히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자녀에게 반응해주고, 영아자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공동양육이 어머니가 전일제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를 통제하고도, 부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높을수록 부의 공동양육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가 양육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실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공동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기업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인지하고, 아버지의 공동양육을 촉진하는 기업문화와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육아휴직을 하고 양육을 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휴직 이외에도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유연하게 자녀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에 대한 실천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아버지에 대한 자녀 돌봄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별로 필요한 시간에 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등 일상적으로 아버지도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등을 활성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양육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원동력이 되기 위해, 가족친화적 제도를 확산시키고 제도이행이 높은 기업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 포함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양육자가 질 높은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양육인력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 예로 다자녀 가정 및 양육제공자가 1명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 지원 가사도우미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가 있을 경우 양육효능감은 높아짐도 불구하고, 영아와 모 사이의 질적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가 많은 경우 부모의 양육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1세 영아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자녀를 돌보면서 1세 영아를 양육할 경우, 1세 양육을 위해 해야하는 기본적인 집안일뿐만 아니라 영아가 마음껏 탐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까지 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지원으로 제공되는 ‘영아 가정도우미’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와 같이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 가정도우미’는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고, 영아 가정의 가사도움 뿐 아니라, 영아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물리적 양육환경, 자녀와 부모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아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력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아의 기관 이용과 부모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가 가정에서 제공하는 양육의 질과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은 영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스스로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관혜(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능력: 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189-200.
- 강선자·손수민(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4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61-188.
- 강한나·박혜원(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613-622.
- 고용노동부(2020).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2).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2(4), 427-444.
- 김용미(2016).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의미, 아동교육, 25(2), 47-64
-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경미·안선희(201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 15-26.
- 김희진·김은영·김현주·최명희·고지민·강재희(2011). KICCE 부모교육 핸드북7. 내 아이에 맞는 놀잇감: 놀이는 아이의 모든 것.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노보람·최나야(2018). 가정환경 자극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5세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661-686.
- 박성연·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성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석원·이대균(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송효현(2014). 이혼 해체 부-자녀 가정과 양부모가정 간 아버지 역할수행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자기조절의 차이.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35-58.
- 안지현(2014).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어린이재단 발간물, 2013(6), 1-43.
- 우혜진·유연옥(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의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36(2), 5-31.
-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 18(3), 127-145.
- 이미화·김은영·권미경·김길숙·김지현·도남희·최윤경·김태우·정미라·강수경·차기주(2016).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영아 양육환경 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송은·박성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 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인간발달연구*, 19(2), 131-149.
- 이승은(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공격과 관계 연구. *인격교육*, 12(2), 69-94.
- 이인하·박지은·최성열(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19(4), 81-91.
- 이주연(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5), 35-48.
- 임현주(2013).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7(2), 190-214.
- 전홍주·조수경·김미정·최항준(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678-2688.
- 정미라·권정윤·박수경(2011). 12개월 영아의 발달과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1(5), 371-389.
- 정미라·이방실·박수경(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7(2), 449-469.
- 정원식(2005). *인간과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조희금(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49-68.
- 최옥채(2019). 저출산 시기 다자녀 부모의 결혼과 출산 경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114(0), 54-90.
- 최윤희·문혁준(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 한누리·문혁준(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 한유미·조경자·강기숙(2012). 영아 및 부모 특성과 12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성관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441-457.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Cheung, G. W., & Lau, R. S. (2008).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6-325.

Scammon, R. E. (1930). The measurement of the body in childhood. In J. A. Harris, C. M. Jackson, D. G. Paterson, & R. E. Scammon (Eds.), *The Measurement of Man* (p. 173).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논문접수 11월 4일 / 수정본 접수 12월 3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 교신저자: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jhkim@kicce.re.kr

Abstract

The Influence of Father's Co-parenting on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Home Environment: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Ji Hyun Kim and Yoonky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athers' co-parenting on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as well as the household's parenting environment mediated by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The study intends to facilitat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especially for those families with young infants. A home-visit survey was conducted, collecting data from mothers with one year old infants. The primary factor,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was determined by observing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dditional factors including fathers' co-parenting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terview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model was significant and maintained a good fit after controlling for the mothers' full time employment, whether the infants have siblings as well as family-friendly culture of the fathers' company. Specifically, fathers' co-parenting did no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r home environment; however, there was an indirect effect on both factors owing to mothers' parenting efficacy. Policies were suggested to help the households rearing one year old infants and encourage fathers to participate in parenting.

Keywords: father's co-parenting, home environ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